

CJ제일제당, 건강식품 판로 확대

대형마트 · 편의점 진출 주력 ... 2012년 대형마트 매출 80% 폭증

CJ제일제당(대표 손경식 · 이재현 · 김철하)이 건강기능식품 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CJ제일제당은 대형마트와 드러그 스토어에 대한 영업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편의점 등 신규 오프라인 매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.



CJ제일제당은 신제품 <뉴트리베이스 멀티비타민 미네랄>과 <뉴트리베이스 오메가3 케어>를 대형마트에 가장 먼저 출시했다.

기존 주력 판매처인 온라인과 홈쇼핑보다 대형마트에 먼저 새상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.

2012년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2011년에 비해 80% 증가했고 취급품목도 20여종에서 30여종으로 늘어났다.

올리브영에서도 먹는 화장품 <이너비>와 다이어

트를 도와주는 <팻다운>을 중심으로 2011년보다 매출이 30% 증가했다.

CJ제일제당은 2월 말 GS25와 협력해 팻다운과 마시는 비타민인 <워터엔> 등 7종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편의점에도 새롭게 진출했다.

김형기 CJ제일제당 건강식품사업부 상무는 “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채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13/03/20>